

힘 빼는 데 3년 걸린다는데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사라지는 우리말들이 많다. ‘일다’란 말도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곡식이나 사금 따위를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다. 또는 곡식 따위를 키나 체에 올려놓고 흔들거나 까불려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는 것. 여기에 나오는 ‘키’나 ‘체’나 ‘까부르다’ 같은 말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알지나 할까.

모래를 일어서 사금(沙金)을 골라내거나 쌀을 일다라는 의미의 한자(漢字)로는, 일 ‘도’(淘)와 일 ‘태’(淘)가 있다. 이 두 자를 합치면 도태(淘汰)가 된다.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식으로 쓰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하지만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이 가려지고 걸러지는, 그 도태의 대상이 바로 나라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옛그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생일 선물로 커피 한 잔을 보내왔다. 나이를 보면 이미 ‘선 세대’인데도 어찌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온 것이다. 미리 커피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찾아 막게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곧잘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낙엽 지는 어느 날 커피숍에 들려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주면,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손주까지 본 할망구가 그런 것도 알고 참 기특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신이 왔다. ‘간편하면서도 돈도 적게 들고 작은 마음 전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우리의 세월도 적잖이 흘렀으니 젊은이들과 공존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당

‘그대의 작은 마음 나에게게는 참 크게 느껴지네’ 어찌구 대총 인사치레를 하고 나서 ‘도태’와 ‘소통’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됐다. 한때 참 엉뚱하다. ‘소통’을 생각하면서 어찌해서 갑자기 국민의당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아마 나도 모르게 애정을 갖고 있었나 보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정작 사람을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듯이, 나 또한 국민의당에 대해 한동안 짝사랑을 해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 알다시피 국민의당은 지금 지난 대선 이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론조사 믿을 게 못되지만 지지율만 보더라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10분의 1수준이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며 바른정당이나 정의당과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는 최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니 지난 총선 당시 지지율 26.7%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아무리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 보면 물리고,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싫증 난다고,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 구호에 많이들 식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은 호남 지역 지지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인기 고공 행진 중인 민주당을 향해 너무 목소리만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8월 당권을 잡은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 왔다. 마치 그계 선행 야당의 길이거나 한 것처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것도 대표적인 실책이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도 좋지만 국민의당이 엄연히 ‘호남당’이라는 현실을 좀더 깊이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 하나는 태극권을 배울 때 사범으로부터 ‘어깨에 힘을 빼라’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이완(弛緩)이 필요한 것은 ‘힘 빼는 데 3년 걸린다’는 골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심지가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다.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한 음’을 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빠른 템포의 곡에 감동하지만 실력을 알 수 있는 건 ‘약한 음 치기’ 같은 것들이라고. 한국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올해 아흔 살의 번스타인(지휘자로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과는 다른 인물이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한다. 그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힘을 빼라’는 것이다.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샌 듯하지만, 국민의당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당장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영광 찾을 방도 없는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명언이다. 골프에서도 멀리 치기 위해서는 가볍게 쳐야 하고, 가볍게 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힘만 잔뜩 들어가고, 공은 쪼르르 굴러가거나 멀리 가지 못한 채 툭 떨어지고 만다. ‘버디가 보기 되는 것’도 다 욕심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시시각각 선거는 다가오는데 집권여당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니, 국민의당 입장에서 조금해질 수 있고 욕심이 앞설 수도 있겠다. 물론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 도지사 선거에 나감으로써 최소한 전남에서는 새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겠고, 어떤 바람이 불지야 지금으로서는 선불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 이긴 하다.

이쯤에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몰락한 보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짜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당분간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인가. 이 또한 쉽게 짐치기 힘들다. 하지만 혹시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보수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럴 경우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당도 다 죽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따라서 욕심을 버릴 일이다. 뻔한 말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젊은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당이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묘약이 없다. 자신의 앞날보다는 당의 앞날을 생각해야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침 당당제를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중선거구제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당이 살 수 있는 한 방법이겠지만, 아직은 먼 얘기다.

해상케이블카·황포돛배…평창올림픽 이색 성화봉송

전남 지역 18~23일 광양·목포·담양 등 순회 계획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오는 18일부터 전남지역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있는 이색 성화봉송 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양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여수~순천~강진~진도~신안~목포~장흥~나주~하순~담양~곡성까지 6일간 성화봉송이 이뤄진다. 오는 19일 여수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성화는 한려수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하늘로 날게 된다. 성화봉송로는 24.7km로, 주요 구간은 여수시청, 이순신 광장, 진남관, 오희도 등이 포함된다.

20일에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국가정원, 순천문화관 등 총 44.1km의 구간을 돌며 올림픽의 정신을 전파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성화가 순천만 PRT(Personal Rapid Transit·4.6km)로 이동되기도 하며, 순천만 국가정원

에서는 성화가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인 강강술래에 둘러 싸인다.

오는 21일에는 헬기를 이용해 전남지역 섬 한바퀴를 비행하며 성화를 봉송한다. 진도 종합운동장에서 헬기에 오르는 성화는 신안군 거제도과 반월도, 진도 가우도와 관매도 등 전남 서남해안 주 주변 105km를 90분간 비행하며 성화를 봉송하게 된다. 성화는 또 오는 22일 나주천연염색 박물관을 출발해 황포돛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고인돌유적지도 들른다.

마지막날인 23일은 섬진강 기차마을에

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이동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거쳐 죽녹원에 안치된다. 교통여건과 일정상 봉송단 전체가 가기 어려운 일부 지역은 소규모 봉송단을 구성해 본대와 별도로 운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 산, 숲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남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국가정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등 생태문화가 연계된 이색 봉송이 이뤄진다”면서 “성화봉송로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부 문화수도 조성 기관장 인선 관심

아시아문화수도조성위원장·전당장 인선 진행 중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핵심 문화 기관장들에 대한 인선 절차가 진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기조와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다.

전임 임항순 조성위원장이 지난 3월 임기를 마쳤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새정부에 선임권을 넘겼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는 설이 돌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5차 공모를 진행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도 인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에서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후보자 3명을 압축, 그 명단을 문화부에 넘긴 상태다. 5·18 단체 등이 서류·면접전형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후

보 3명 압축설’ 등이 제기됐으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 3명에 포함된 인사가 전당장에 선임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문화전당의 위락을 받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장은 지난달 31일자로 공석이 됐다. 2015년 10월 선임된 김병석 문화원장은 공식 임기를 마쳤다. 아시아문화원장은 아시아 문화원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문화부에 후보자 최종 선임을 요청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노인 많은 곳 암·만성질환 많고 진료비도 많다…고흥 263만원 ‘1위’

전국 1인당 연평균 146만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로 주요 암과 만성질환 환자가 많고, 1인당 진료비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흥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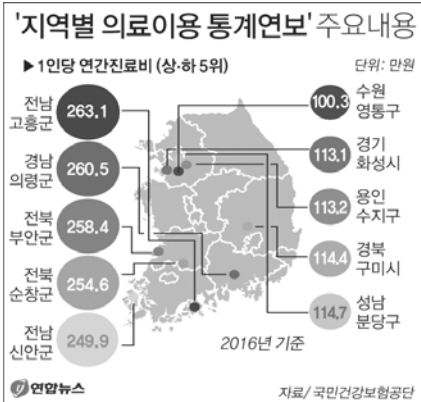
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27만명이었다. 전체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71조9671억원으로 2015년 64조8300억원 보다 11.0%(7조 1371억원) 증가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46만8000원으로 전년의 133만5000원보다 10.0%(13만

3000원) 늘었다.

시군구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고흥군이 2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의령군(260만원), 전북 부안군(2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00만원이고, 경기 화성시(113만원), 용인시 수지구(113만 2천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목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헌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방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 익산면 독암리 바다집 2481㎡ 팬션·별장적합 2억4천
- 원도 익산면 독암리 경관최고부지 31503㎡ 염소사육적합 5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안한 분유기 1억4500
- 정성 북이면 백양를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4㎡ 주택 118㎡ 주택도공실 1억5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사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사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10조합 4억
- 화순을 통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층주택 60여 평 편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태양광 적합! 13435㎡ 2억6400
- 임계장 허가부지 장충을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을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비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암군 심호을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창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식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동시정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송정리 부동산 매물

▶KTX 개통 최대 혜택지

▶투자가치의 3개소

▶11억, 12억, 19억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대형부지 (만오천평)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